

# “찍을 후보 아직 못 정했다”... 부울경 민심은 ‘오리무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진주시 중앙시장에서 상인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남신문=김승권 기자>

## 부산

6·3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이지만 부산의 민심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24·25일 만난 유권자 상당수가 어느 후보를 뽑을지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시민은 대선을 언급하면 “모른다”, “무당중”이라고 손사래를 치기까지 했다. 이는 불과 며칠 새 지지율 희비가 엇갈리는 등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부산은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으로도 꼽힌다. 지난 4·2 재보궐선거 결과, 부산교육감은 진보 진영이 승리를 거뒀다. 반면 정권 심판론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지난해 총선 때는 부산이 18개 의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에 몰아주며 개헌 지지세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매 선거마다 양당이 엇지락뒤치락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아내는 선거라는 주장과 12·3 불법계엄·내란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각 진영 확신의 목소리가 팽팽했다. 주말 첫 날인 지난 24일 부산 남구 못골시장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의 현안을 매년 막아온 이들이 민주당 아니냐”며 “부산에서부터 입법 독재 심판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공기업 직원 허모(39)씨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에 실망했고, 계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정당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보러 간 게 너무 화가 난

## 대선 묻자 “모른다” 손사래 “내란 심판” “입법독재 심판” 박빙의 승부 펼쳐질 듯

다. 경기지사 시절 보여준 행정력 등을 고려해 일을 잘할 것 같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산 민심이 오리무중이라는 점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실시한 조사(미디어 트리뷰 의뢰, 1005명) 결과, 부산의 여론을 엿볼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이재명 후보 41.1%, 김문수 후보 43.7%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었다. 이후 같은 기관(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012명)이 지난 20·21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부울경 응답자 중 53.6%가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며 이재명(34.4%) 후보를 따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인 같은 달 22·23일 실시한 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009명)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2%로 다시 약진, 김문수 후보는 37.0%에 그쳤다.

“지지 후보 없음”과 “잘 모르겠음” 응답도 이 기간 두 번째 조사(20·21일)를 제외하고는 각각 6.1%, 3.6%로 다른 권역과 비교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선거 당일 각 진영이 최종 결집할 경우 이들의 향배도 당락을 가르는 데 주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모든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산일보=이은철·나용기 기자

## 울산

울산은 전체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제조업 도시의 특성상 노동계의 진보세 또한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공단과 농어촌을 아우르는 동·북구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충돌하는 최대 격전지로 거론된다.

2022년 대선 때 울산 북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단 95표차, 초박빙 승부 끝에 신승을 거뒀다. 영남권에서 이 후보가 유일하게 이긴 곳이다. 반대로 조선업도시 울산 동구에서는 당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2.6%포인트 근소한 차로 승리했다.

지난 24일 대형마트가 밀집한 북구 진장동에 들어서자 시민들 사이에서 다소 복잡한 민심이 느껴졌다. 명확하게 선호하는 후보가 있다기보다 주로 이재명 후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송정동에 산다는 60대 주부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우리 애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하는데, 거짓말도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영 믿음이 안 간다”며 “오늘 장을 보는데 계란이 고 돼지고기 안 비싼 게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크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냐”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근무한다는 40대 직장인은 “마음 같아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한 표 주고 싶지만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를 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슬비가 내리던 이날 울산대공원은 장미축제를 보러 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볐다. 이곳에서 만난 30대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는 “주변을 보면 (이주여성들이) 조심스럽지만 대부분

## 보수·진보 충돌 격전지 이재명 후보 엇갈린 평가 40대 “호감”·60대 “못믿어”

민주당을 뽑겠다는 얘기를 한다. 자세한 공약은 모르고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약자와 소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초등생 자녀를 데리고 온 범서는 40대 남성은 “아이와 난생 처음 비상계엄을 겪고 나서 국민의힘은 절대 뽑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정권 교체와 개헌이 시대적 화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령층에서는 유독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호가 강하게 다가왔다. 울산 공업탑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만난 70대 택시 기사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국회고, 정부고 대한민국 독재국가로 가는 것밖에 더 있느냐. 만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택시 기사도 “(이준석과) 단일화만 되면 김문수도 해를 만하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부동층과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남구 무거동에서 만난 울산대 3학년 여학생은 “누구를 뽑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우리 나라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잔혹사를 막고 개헌 같은 시대적 요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울산대 남학생도 “우리 같은 젊은 세대가 마음껏 지지할 수 있는 보수 후보가 없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뚜렷한 동기부여를 찾기 힘들어 투표에 대한 회의감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일보=권승혁 기자

## 경남

6·3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전통적 보수 강세지역인 경남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비상 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 대선후보 선출과정 잡음 등으로 국민의힘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상승세를 체감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다만 국민의힘에 실망한 유권자라도 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아 지지충이동을 단언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특히 정치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이보수’ 표심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결집하는 분위기여서 여론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 경남에서 민주당이 예년 수준을 웃도는 지지율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국 평균 47.83% 지지율을 얻었지만 경남에서는 37.38% 득표에 그쳤다. 앞서 경남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36.73%, 노무현 전 대통령은 27.08%를 각각 얻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는 경남에서 40%대 득표율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국 48.56%를 득표했지만 경남에서는 58.24%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역대 대선에서 보수 강세를 보인 경남일지라도, 보수 진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이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 후보가 예전같은 50%대 지지율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김현지(35·양산)씨는 “지난해 계엄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엄을 합리화하는 정당

## 국힘에 유권자들 크게 실망 민주당 예년보다 높은 지지 사이보수 막판 결집이 변수

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승철(56·창원)씨는 “이번 선거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는 알 거다. 그걸 상쇄시키려는 노력을 해도 모자란데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임 없었다. 등을 돌려야 정신 차린다”고 했다. 김모(50·김해)씨는 “김문수 후보는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 아니냐. 사과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섰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시민도 적지 않다. 자영업자 김영호(61)씨는 “범죄자가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도자의 도덕성은 기본 아니냐”고 했다. 정모(45)씨는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 사람 같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걸 뭐가 억울하고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뻔뻔하다”고 했다.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영호씨는 “김문수 후보는 훌륭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 안 하면 대역죄인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카페 자영업자 신지영(45)씨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들었다. 커피 파는 자영업자들 도둑놈으로 몬 것 같았다. 계엄 이후 장사가 너무 안돼 국민의힘은 안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은 더 아닌 거 같다”고 했다. /경남신문=김현미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